

‘송정역세권’ 광주 대표 상권으로 조성한다

중기부 ‘상권 르네상스’ 사업 선정...환경개선·활성화 지원 광산구, 남도의 맛·멋 살린 ‘광주송정역 1시간 맛거리’ 추진

광주 광산구가 송정역세권을 남도의 맛과 멋을 살린 광주 대표 상권으로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르네상스’ 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잠재한 광산지역 골목상권의 새 전성기를 여는 발판이 될지 주목된다.

15일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중기부가 주관한 ‘제5차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에서 광주송정역세권 상권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낙후된 구도심을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환경개선과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송정역 일대는 광주와 전남을 연결하는 교통 거점이자 남도 문화를 처음으로 만나는 관문이다. 광주송정역 하루 이용객은 2만2000여 명으로, 주변 유동 인구도 하루 평균 4만4000여 명에 이른다.

특히 뛰어난 교통 접근성과 함께 인근에서 추진 중인 송정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주송정역 KTX지역 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과 연계 등 발전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다.

광산구는 이 같은 발전 잠재력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광주송정역 1시간 맛거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산로와 1913송정역시장을 잇는 21만5241㎡를 가지고 싶은 대표 상권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

공모 이전부터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가 중심

이 돼 상인단체들과 ‘상권활성화 협의체’를 꾸려, 공감대를 확산하는 등 토대를 다졌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상인과 임대인의 사업 동의 및 상생협약 동의율이 90% 이상을 기록했다. 여기서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직접 현장 평가와 발표 평가를 행하며 사업 유치를 지원했다.

총력전 끝에 공모에 선정된 광산구는 광산로부터 1913송정역까지를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에 걸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No.1(남버원) 소상공 혁신 선도허브 광주송정역세권 상권’을 비전으로 ▲매력 넘치는 상권 환경 개선 ▲활력 있는 ‘오픈마켓’ 상권 활성화 ▲풍격 있는 소상공 혁신지대화 등 3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민선 7기 내내 광산구가 역점 추진해 온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역량과 성과를 결합한 다양한 사업을 시도할 계획이다. 광주송정역 이용객과 인근 유동 인구를 상권으로 끌어들이고, 오래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다양한 ‘편(fun) 환경’ 등도 조성한다.

광산구 사장님 아카데미를 수료한 ‘광산 장사의 신’ 대표식당 유지 및 협업을 통해 스타 점포를 적극 육성하고, 이를 상권 내 동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첫단추’다.

이어 광주와 광산구의 ‘광’을 핵심으로 다양한



중소벤처기업부 제5차 상권 르네상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광주송정역세권 상권 전경. 광산구는 내년부터 상권 일대를 ‘광주송정역 1시간 맛거리’로 조성한다.

‘오픈마켓’ 콘텐츠를 곳곳에 배치해 송정역세권 100년 역사와 이야기, 미래 기술과 현대적 감각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공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의 우수 성과인 소상공인 1% 희망대출을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해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과감한 도전을 뒷받침하고, 사장님 아카데미는 소상공 혁신 아카데미로 발전시켜 상인의 전문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광산구는 중기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실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광주송정역 1시간 맛거리’로 송정역세권 상권을 광주의 관문 상권에서 광주를 대표하는 중심 상권으로 우뚝 세우겠다”며 “자발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 모델로 반드시 성공시켜 골목경제의 부흥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소촌 빛을 띠(탐)하다” 산단 프레비엔날레

16~26일 소촌아트팩토리, 융복합 매체 예술 전시

광주 광산구 2021 산단 프레비엔날레가 16일 개막한다.

‘소촌: 빛을 띠(탐)하다’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26일까지 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 일원에서 진행된다.

프레비엔날레는 2년마다 여는 산단 비엔날레의 내년 개최를 앞두고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코로나19 이후 전환기 예술, 문명이 나아갈 방향을 가능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역기획자인 이현남 예술 감독을 중심으로 김창겸 한국미디어아트협회 이사장, 레이박 작가, went(웬트)팀(이가현&이운서 작가) 등이 참여해 인공지능, 가상현실, 홀로그램 등 과학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인다.

주제전 ‘기술공간: (感)·매체감상’은 김창겸 작가와 went의 협업을 바탕으로 관객과 함께 소통하는 인터랙티브 아트(대화형 예술), 인공지능과 만다라 등 다양한 작품으로 채워진다.

‘경계선: (線)·가상 그리고 현실’을 주제로 한 기획전은 홀로그램으로 가상과 현실의 모호한 경계를 표현한 레이박 작가의 작품을 비롯해 지역적 인 경계에 대한 담론을 제시한 아시아 작가들의 미디어아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예술 융합의 현재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찰해보고 문화 생태계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전문가 포럼이 열린다.

전시는 전시 기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다. 월요일은 휴관이다.

산단 프레비엔날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문화예술과 소촌아트팩토리팀(062-960-3686)으로 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위로와 희망’ 겨울밤 밝히는 광산의 빛

20~26일 쌍암공원, 미디어 아트·LED 조명 전시

광주 광산구가 20일부터 26일까지 ‘빛으로 채우는 일상’을 주제로 빛과 예술을 결합한 미디어 아트와 LED 경관조명 등을 설치해 겨울밤을 밝힌다.

쌍암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저녁 시간, 빛을 활용해 시민이 야간경관을 즐기며 마음에 활력을 되찾도록 하자는 의미를 담아 마련됐다.

▲미디어 아트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광산인 작가’ ▲‘비즈로사관·터널’ ▲‘화려 광산’ ▲‘잔란한 오름’ 등 각기 다른 주제의 7개 공간을 마련해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미디어 아트에선 어등산 설화를 3차원 영상으로 표현한 착시 미술을 만날 수 있다. 어등산 설화에 등장하는 인어가 레이저를 통해 호수 위를 헤엄치는 모습은 물론 광산 예술인의 작품과 명소 등을 3차원으로 변환해 색다르게 전시할 예정이다.

‘광산인 작가’에서는 지역 작가들의 회화, 사진 등을 비롯한 제31회 배동신 어등미술제 작품을 전시한다.

‘비즈로사관’과 ‘비즈로 터널’은 네온과 광섬유 등으로 꾸민 감성 글귀와 포토존, 화려한 조명이 어우러진 산책로로 꾸며진다. 겨울밤 정취와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잔란한 오름’에선 시민의 소망으로 채운 빛나는 등(燈), ‘화려광산’은 화려한 불빛이 쏟아지는 수목의 멋진 경관을 선보인다.

광산구 관계자는 15일 “이번 행사는 광산구의 아름다운

야간 경관과 함께 올 한해를 돌아보며 힘들었던 마음을 달래고, 새해 소망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다”며 “철저한 방역과 꼼꼼한 준비로 연말연시 시민들께 최고의 순간을 선물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입장 인원을 500명 미만으로 정하고,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방역패스’를 적용해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백신접종 완료, PCR 음성확인, 만 18세 이하, 접종예외자 등을 확인하고 발열체크, 출입명부 등 작성해야 입장할 수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이야기꽃 도서관에서 크리스마스 추억을...

18~19일, 그림책 체험·공연

광주 광산구는 15일 “이야기꽃도서관에서 성탄절을 맞아 18~19일 그림책과 함께하는 체험 및 공연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18일에는 크리스마스 머그컵 만들기(2회)와 샌드아트 공연 ‘소중한 선물’을 진행한다. 19일에는 크리스마스 젤캔들 만들기(2회), 마술극 ‘내가 산타라고?’를 선보인다. 각 프로그램에선 성탄절을 주제로 다양한 그림책을 만나볼 수 있다.

또 도서관 2층 자료실에서는 그림책 ‘키다리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는데’ 원화아트 프린트 전시를 연다. 이야기꽃도서관은 연말을 맞아 가족이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행사를 가족 단위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백신접종 완료자, PCR 검사 음성 확인자 등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광산구 평생학습포털 누리집(https://edu.gwangsan.go.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꽃도서관(062-960-68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양성평등정책 평가

광산구, 2년 연속 ‘최우수’

광주 광산구는 “광주에서 실시하는 자치구 양성평등정책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평가는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여성참여 촉진 부문, 여성 안전과 권익 향상 부문,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부문 등 총 3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광산구는 ‘광산형 마을돌봄체계 구축’, 여성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모아모아행복센터 운영’, ‘평등육아를 위한 아빠육아 사진전’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미안마 군부 폭력 규탄 폭력예방 캠페인’, ‘LOOK AGAIN(룩 어게인) 보라데이 캠페인’ 등 여성 안전과 권익 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 점 등도 좋은 점수를 얻었다.

광산구 관계자는 “차별과 인권침해 없는 광산을 만들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양성평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차별, 성폭력 등을 방지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평등이 실현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나주대리점 010-3626-3848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동부권역 010-2450-1954

광양대리점 010-5355-1292
함평대리점 010-2602-6051
광주·영광 010-3925-2181
전남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